

# 다문화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 지원에 관한 연구\*



장 임 숙  
제1저자(부산대학교)  
(mukk73@naver.com)



김 희 재  
교신저자(부산대학교)  
(khjih@pusan.ac.kr)



## 국문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 지원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먼저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2012년 다문화

1)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8A01054492)

가족 실태 조사」의 원자료(raw data) 및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업 수행을 위한 교육지원과 진로지원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진로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학업수행

## I. 들어가며

2014년 10월 현재 한국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규모가 1,779,985명으로 전체 인구의 3%를 넘어섰다. 관련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인원으로 기록되는데 현재와 같은 증가율이라면 2050년에는 이주민 가구가 전체가구의 4.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중앙일보 2014). 이주민이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족 역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데 최근에는 결혼 이주민의 수에 비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가 더욱 가파르게 성장하는 추세이다.

2014년 안전행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자녀의 수는 현재 20만명을 넘어섰다. 경기도 안산의 한 초등학교는 학급당 평균 25명의 학생 중 6명이 다문화 가족 자녀이며 이주민이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경우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다문화 가족 자녀에 해당한다(이데일리 2014).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정부는 이주민 2세들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들의 진로 및 직업교육에 관련한 지원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로 인해 혼란과 혼돈을 겪는 동시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성숙한 자아실현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이유경외 2012: 131 재인용). 따라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자아실현과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2000년대 들면서 국제결혼비율의 지속적인 증가와 외국인 배우자의 사회적·문화적 부적응과 가족문제, 2세 문제 등이 구체화, 사회화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의 연구는 보육 및 가족문제의 하나로 연구되기 시작하다가(설동훈 외, 2005),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연구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주 배경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한국사회 적응실태(이재분 외, 2009; 정선진 외, 2012; 서은경 외, 2013; 엄명용, 2013; 김순규, 2011)와 학교적응실태(조혜영 외, 2007; 김승경, 2013; 김혜미 외, 2013; 이병철 외, 2011; 백지숙 외, 2013)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최근에는 청소년기의 특성상 진로와 취업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각종 연구보고서에서 이주 배경 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이 학업과 함께 진로문제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한 논의들은 주로 이들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업성적 부진, 학교에서의 따돌림, 사회적 차별과 소외 등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부정적 고정관념을 오히려 강화시키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학교내 부적응과 따돌림, 성적 부진 등은 비단 이주 배경 청소년들만의 문제는 아니며 이들의 잠재적 역량을 개발하여 글로벌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진로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sup>2)</sup>의 학업 및 진로 지원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한다. 「2012년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의 원자료 raw data 및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업 수행을 위한 교육지원과 진로지원의 실태를 파악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향후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진로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다문화청소년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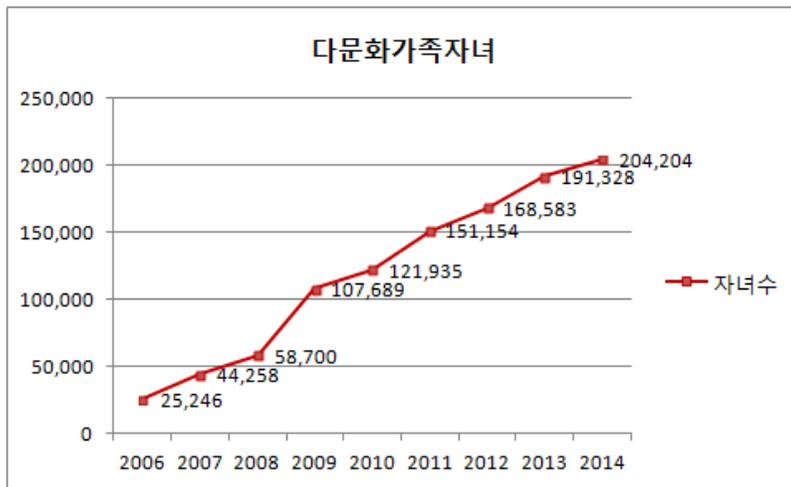
다문화청소년을 일컫는 용어는 다문화가족자녀를 비롯하여 이주아동, 이주배경 청소년, 다문화가정청소년, 다문화청소년 등으로 다양하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다문화가족자녀라는 용어를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자녀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자녀 혹은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동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자녀”라고 명시한다. 따라서 법률에서 규정하는 다문화청소년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를 의미하므로 한국인

---

2)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은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로 구성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에서 한국출생 자녀, 외국인부모의 본국에서 태어나 성장기에 국내에 입국한 중도입국자녀, 그리고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구분된다. 그런데 이주배경 청소년의 대다수가 국제결혼가정자녀 중 한국출생자녀들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출생 자녀, 즉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용어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있지만, 연구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국내 출생 자녀와 국제결혼가정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한 중도입국 자녀만을 포함하고,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외국인가정 자녀는 제외된다. 반면에 교육부는 다문화청소년을 '다문화가정 학생'이라고 칭하고, 앞서 언급한 국제결혼자녀와 외국인가정자녀를 모두 다문화가정 학생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범주화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 무국적자의 자녀, 난민신청자의 자녀 등은 정책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교육부의 경우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초, 중등학교 입학을 허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다문화가족자녀수는 2006년 25,246명에서 2009년 107,689명으로 급증하였고,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1월 현재 204,204명에 이른다(<http://www.mospa.go.kr>). 2014년 1월 현재 다문화가족자녀 중에서 외국인부모의 자녀가 13,512명, 외국인-한국인부모의 자녀가 179,283명, 한국인부모의 자녀가 11,409명을 차지한다.<sup>3)</sup>



〈그림 1〉 연도별 다문화가족자녀의 증가 추이

지역별 다문화가족자녀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51,960명, 서울 30,226명, 경남 15,143명, 전남 12,832명, 경북 12,578명의 순이다(안정행정부, 2014). 다문화가족자녀는 서울시를 제외하면 대도시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데, 이것은 도시와 농촌의 출산율 격차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4)</sup>

3) 외국인부모는 부모가 모두 '출생시부터 한국인'이 아닌 경우, 외국인-한국인 부모는 부모 중 한쪽이 '출생시부터 한국인'이 아닌 경우, 한국인부모는 '출생시부터 한국인'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 또는 모가 이혼 후, '출생시부터 한국인'이 아닌 자와 재혼한 경우에 해당한다(안정행정부, 2014).

4) 2010년 합계 출산율을 보면 상위 10위권 가운데 전남 강진군과 전북 완주군 등 9곳이 농촌이고,

〈표 1〉 지역별 다문화가족자녀 현황

(단위: 명)

총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191,328	29,285	8,311	48,138	6,498	7,272	11,010	9,989	12,149
	경북	경남	제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1,574	14,294	2,358	5,829	11,082	4,519	4,365	4,092

출처 : 안전행정부,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안전행정부의 집계방식과 달리, 교육부의 통계자료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기준으로 집계되므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비(非)학생 청소년은 제외된다. 교육부에서 집계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4월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총 67,806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1%를 넘어섰다. 2010년 31,788명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표 2〉 교육부의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단위 : 명)

인원수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다문화 학생 수(A)	31,788	38,678	46,954	55,780	67,806
전체 학생 수(B)	7,236,248	6,986,853	6,732,071	6,529,196	6,333,617
다문화학생 비율	0.44%	0.55%	0.70%	0.86%	1.07%

출처 : 교육부, 2014년 다문화학생현황 통계

학교급별로 2013년 학생 수와 2014년 학생 수를 비교해보면, 2014년에는 중학생의 비율은 약간 줄어든 반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전체에서 초등학생의 비율은 70.7%에서 71.2%로 0.5% 증가하였고, 고등학생의 비율은 9.0%에서 10.3%로 1.3% 증가하였다. 학령기 자녀 중에서도 고등학생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다문화청소년의 대학진학과 진로선택과 관련해 새로운 정책수요의 발생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학령 전 아동에 대한 지원, 또는 초등연령 아동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던 지원정책의 내용을 확장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성장특성에 부합하고 다문화청소년들이 청소년기에 이르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지원정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양계민 외, 2013: 32-33).

하위 10위권은 모두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가 차지했으며, 시도별로 서울과 부산 등이 1.0명 안팎으로 최저 수준인 반면 전남, 충남 등은 1.5명에 이른다(연합뉴스,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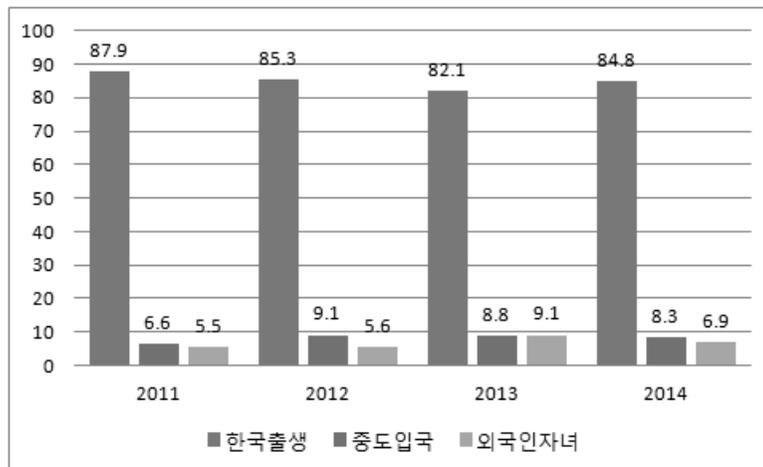
〈표 3〉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

(단위 : 명)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한국출생	32,831	9,174	3,809	45,814	41,575	10,325	5,598	57,498
중도입국	3,065	1,144	713	4,922	3,268	1,389	945	5,602
외국인자녀	3,534	976	534	5,044	3,454	811	441	4,706
계	39,430	11,294	5,056	55,780	48,297	12,525	6,984	67,806
비율	70.7%	20.3%	9.0%		71.2%	18.5%	10.3%	

출처 : 교육부, 2014년 다문화학생현황 통계

유형별 현황을 보면, 전년에 비해 2014년에는 한국출생 및 중도입국 학생의 경우 초,중,고 등학생 모두 증가한 반면, 외국인자녀는 학교급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에 따른 연도별 변화 추이를 보면, 한국출생 자녀는 2011년 87.9%에서 2013년 82.1%까지 감소하였다가 2014년에 조금 상승하였다. 반면에 중도입국 자녀는 2011년 6.6%에서 2012년 9.1%로 증가한 후 2013년부터 다소 감소하였고, 외국인자녀도 2011년 5.5%에서 2013년 9.1%까지 증가하였으나 2014년 6.9%로 다시 감소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한국출생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나 매년 그 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림 2〉 유형별 · 연도별 다문화가정 학생의 변화추이

### Ⅲ. 다문화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 지원에 관한 실증분석

#### 1. 『20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한 실증분석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 지원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일차적으로 『20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거해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2009년 제1차 실태조사에 이어 2012년에 실시된 『20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새로운 정책대상에 포함된 귀화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확대하여 총 15,341가구를 조사하였다. 2012년 조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해서 성별, 지역, 출신국적을 반영한 체계적인 표본설계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한국인 남편 등 배우자, 만9세~24세 자녀를 대상으로 4종의 조사표를 개발하여 조사하였다.

『20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문항은 한국어 사용, 학교폭력 경험 등 총 71개 항목이다. 이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있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과 진로에 관한 조사항목들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항목은 세부 항목 포함해 총 27개이다. 총 27개 항목은 크게 학업수행, 진학육구, 진로지원, 지원시설 이용이라는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4가지 영역으로 중심으로 SPSS Windows 20.0을 이용해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실태조사의 설문항목

범주	세부 내용
학업수행	취학 여부, 학업중단 이유, 학업수행 어려움, 교육지원
진학육구	진학육구, 외국인부모나라 유학의향
진로지원	학습지원,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 직업기술훈련, 한국어교육, 외국인부모나라 언어교육, 외국인부모나라 문화교육, 한국사회 적응교육, 직업소개, 상담
지원시설 이용	교내 방과 후 교실, 공부방/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청소년 상담 및 지원센터, 고용센터

조사대상인 만9세~24세의 다문화청소년은 총 66,536명으로 여성 32,622명, 남성 33,882명으로 구성되고, 자녀의 평균 연령은 만 7.38세이다. 조사대상 자녀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연구대상의 연령별 분포

(단위: %, 세)

연령대	6세 미만	6~11세	12~14세	15~17세	18세 이상	전체	평균
비율	52.4	25.7	8.4	4.6	8.9	100.0	7.38

출처: 여성가족부, 2013

조사대상의 학교급별 취학률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취학률은 97.9%이고(전체 98.6%), 중학교 취학률은 92.3%(전체 96.1%), 고등학교 취학률 85.1%(전체 92.6%),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49.3%(전체 68.4%)로 전반적으로 전체 학생 취학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학생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률은 학교급이 상승할수록 차이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연구대상의 학교급별 취학률

구분	2012년 전체학생 (다문화가족 자녀 포함)	2012년 다문화가족 자녀
초등학교	98.6%	97.9%
중학교	96.1%	92.3%
고등학교	92.6%	85.1%
고등교육기관	68.4%	49.3%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2간추린 교육통계」.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수행, 진학욕구, 진로지원, 지원시설 이용이라는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수행과 관련해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의 비율이 전체의 67.2%를 차지하고, 졸업을 포함해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은 비(非)학생 19.8%, 대학생 11.5%, 초·중·고등학교 중퇴자 1.5%를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한 이유에는 친구나 선생님과 관계(23.8%)가 23.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어려운 가정형편이 18.6%, 그리고 학교공부의 어려움이 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시지역 청소년(27.1%)들이 농촌지역 청소년(10.7%)보다 친구나 선생님과 관계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약 3배 가까이 높았다(여성가족부, 2013).

그리고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의 경우 대체로 학교 공부에 별 어려움이 없는 것(74.7%)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청소년들은 공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6.7%), 선생님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서(4.6%),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서(4.1%) 학교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재학생의 64.8%는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수업, 학습지 등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일주일에 평균 8.91시간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청소년 9.76시간 보다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진학욕구와 관련해 다문화청소년의 55.4%가 4년제 이상 대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했으며, 전체의 20.1%가 4년제 미만 대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한 반면에 전체의 10.0%는 고등학교까지만 교육을 받기를 원했다. 그리고 다문화청소년의 31.7%는 외국인 부모의 나라에서 공부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에는 외국인 부모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40.6%)가 가장 많았고, 이 외에도 한국보다 성공하기 쉬울 것 같아서(12.9%), 한국보다 교육환경이 좋아서(12.1%), 외국인 부모의 나라에서 일하기 위해서(10.7%) 등을 이유로 꼽았다.

참고로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자녀 희망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과 달리 그들의 부모인 결혼이주민들은 자녀가 4년제 이상 대학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전체의 66.0%를 차지하고, 대학원 석사(5.9%) 및 박사(19.7%)를 희망하는 비율도 25.6%를 차지하는데 비해 4년제 미만 대학교에 진학하거나(6.8%), 고등학교까지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비율(1.6%)은 매우 낮았다. 이러한 현상은 결혼이주민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였다. 결혼이주민 배우자의 경우, 자녀의 희망교육수준으로 4년제 이상 대학교(66.8%)와 대학원 박사(18.4%) 및 석사(5.0%)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4년제 미만 대학교(8.1%)와 고등학교 이하(1.7%)를 희망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결국 다문화청소년에 비해 부모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진학욕구가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주청소년의 부모인 결혼이주민과 그 배우자는 모국(배우자의 모국)에서 자녀를 공부시킬 의향이 각각 45.2%, 41.2%로 나타나 모국유학을 고려하는 비율이 자녀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다문화청소년들은 진로지원과 관련해 전체의 54.1%가 진로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45.9%의 청소년들 중에는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교육지원 15.6%,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 6.8%, 한국어교육 6.3%, 외국인부모나라 언어교육 4.2%, 한국사회 적응교육 4.2%를 차지한다. 이러한 진로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다문화청소년들은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2.74점), 직업기술훈련(2.87점), 직업소개(2.89점), 학습지원(2.97점) 등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한국어교육(3.94점), 한국사회 적응교육(3.77점), 외국인부모나라 문화교육(3.43점), 외국인부모나라 언어교육(3.36점), 상담(3.33점)은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았다.<sup>5)</sup>

넷째, 학업수행 및 진로지원을 위해 다문화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시설은 교내

방과 후 교실(51.3%)이며, 그 다음으로 공부방/지역아동센터(20.6%), 다문화가족지원센터(14.7%), 사회복지관(8.9%), 청소년 상담 및 지원센터(5.6%), 고용센터(3.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상당수가 고용센터(64.9%), 사회복지관(49.1%), 청소년 상담 및 지원센터(48.6%), 다문화가족지원센터(44.6%) 등의 시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즉 다문화청소년들은 대부분 방과 후 교실이나 공부방을 이용하는 편이고 나머지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청소년의 교육지원에 있어서 공적 기능의 강화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다문화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학률이 낮은 편이고, 비(非)학생의 경우 친구나 선생님과 관계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재학생들은 학업을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문화청소년들은 대부분이 4년제 대학 이상에 진학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반해, 진학 및 진로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접한 경험은 낮았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과 진학 및 진로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2. 다문화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 지원

『20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 지원과 관련된 항목은 세부항목 포함하여 총 27개인데, 이들 항목들의 내용이 다소 포괄적이고 일반적이어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부적인 질문들을 추가한 설문조사를 통해 내용을 보완하였다. 설문조사는 크게 학업수행을 위한 교육지원과 진로지원이라는 2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학업수행을 위한 교육지원은 학업수행을 위한 학습활동, 필요한 지원프로그램, 지원프로그램 참여 동기로 세분화하고, 진로지원은 희망 고교/대학 계열, 장래 진로에 대한 현재 상황, 진로지원 프로그램 경험 및 이용의사로 세분화한다.

첫째, 학업수행을 위한 교육과 관련해 앞서 『20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은 과외수업, 학습지 등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방과 후 수업과 배움터 외에도 멘토링, 국영수학원, 학습지를 조사항목으로 하여 학업수행을 위한 학습활동의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은 앞서 『20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필요성이 낮게 나타났던 한국어교육, 한국사회적응교육, 외국인부모나라 문화교육, 외국인부모나라 언어교육 등을 제외하고, 학습지도, 진로상담, 문화예술교육, 고민상담, 기타로 구분한다.

셋째, 다문화청소년들이 학업수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참여 동기를 파악하는 항목은

---

5) 항목의 측정은 매우 필요하면 1점, 보통 3점, 전혀 필요 없으면 5점을 부여하는 5점 척도를 사용한다.

학교성적 향상, 부모님 권유, 선생님 권유, 과거 이용 경험으로 이루어진다.

넷째, 희망 고교/대학 계열은 『20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희망교육수준에 대한 질문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가되었다. 조사항목은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고교계열은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실업고로 나누고, 희망하는 대학유형은 국공립대, 사립대, 교육대, 전문대 외에도 취업을 포함한다.

다섯째, 장래 진로에 대한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항목은 “나는 아직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 “나는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직업의 종류, 성격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나는 현재, 내가 갖고 싶은 장래 직업이 자주 바뀐다”, “나는 현재, 장래 직업에 대해 부모님과 의견 차이가 있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생각해본 적이 없다”라는 5가지로 나누어 측정한다.

여섯째, 진로지원 프로그램의 경험 및 이용의사를 파악하는 항목은 진로 관련 강연 및 수업, 진로 관련 소집단 활동, 진로적성검사, 직업생활 체험프로그램, 진로 관련 책/잡지 지원이라는 5가지로 나누어 이용경험 및 이용의사에 대해 물었다.

〈표 7〉 조사항목의 세부 내용

범주	하위범주	세부 내용
학업수행을 위한 교육지원	학습활동	- 멘토링, 국영수학원, 배움터(공부방), 학습지, 방과 후 수업
	필요한 지원프로그램	- 학습지도, 진로상담, 문화예술교육, 고민상담, 기타
	지원프로그램 참여 동기	- 학교성적 향상, 부모님 권유, 선생님 권유, 과거 이용 경험
진로지원	희망 고교/대학 계열	-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실업고 - 국공립대, 사립대, 교육대, 전문대, 취업
	장래 진로에 대한 현재상황	- 나는 아직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 - 나는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직업의 종류, 성격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 나는 현재, 내가 갖고 싶은 장래 직업이 자주 바뀐다. - 나는 현재, 장래 직업에 대해 부모님과 의견 차이가 있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 생각해본 적이 없다.
	진로지원 프로그램 경험 및 이용 의사	- 진로 관련 강연 및 수업, 진로관련 소집단 활동, 적성검사, 직업생활 체험프로그램, 진로 관련 책/잡지 지원

설문조사는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상 “인권, 희망을 만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1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는 2012년 9월 2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대상 다문화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조사대상 다문화청소년들의 나이는 평균 15.74세이며, 학년은 평균 중학교 2, 3학년 정도에 해당한다. 학년별 비율을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이 26.3%, 2학년이 31.6%, 3학년이 15.8%, 고등학교 2학년이 15.8%, 3학년이 10.5%를 차지한다.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형제 수는 평균 2.18명이며, 첫째인 경우가 82.4%이고, 둘째인 경우가 17.6%로, 첫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셋째, 부모님의 평균 나이는 아버지 49.06세, 어머니 42.12세로 부모의 연령 차이는 약 7세 정도로 나타났다. 넷째, 외국인부모의 한국어능력은 평균 1.53으로 한국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섯째, 다문화청소년들은 친구관계가 1.76점으로 가장 좋고, 그 다음으로 가족관계 평균 2.00점이고, 선생님과의 관계는 평균 2.1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섯째, 학교수업의 난이도는 평균 3.35점으로, 보통 혹은 조금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쉬움 5.9%, 조금 쉬움 11.8%, 알맞음 23.5%, 조금 어려움 58.8%로 과반 수 이상이 학교수업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학업성적은 상위권이 23.5%, 중위권이 41.2%, 하위권이 35.3%를 차지하는데, 학업성적은 학교수업의 난이도 수준과 유사하게 중위권 및 하위권이 다수를 차지했다. 여덟째, 부모의 출신국가는 일본과 중국이 다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필리핀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아홉째, 가정의 경제수준은 상 5.9%, 중상 11.8%, 중하 41.1%, 하 23.5%로 나타났는데, 중하 이하의 계층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편은 아니었다.

〈표 8〉 조사대상자의 특성

구분	평균값	구분	비율
연령	15.74세	학업성적	상 23.5%
형제관계	2.18명		중 41.2%
부모 연령	부 49.06세/모 42.12세		하 35.3%
외국인부모의 한국어능력 <sup>6)</sup>	1.53점	부모 출신국가	대만 4.8%
가족관계 <sup>7)</sup>	2.00점		베트남 4.8%
친구관계	1.76점		인도네시아 4.8%
선생님과의 관계	2.18점		일본 23.8%
학교수업 난이도 <sup>8)</sup>	3.35점		중국(조선족) 23.8%(4.8%)
			필리핀 14.3%
		경제수준	상 5.9%
			중상 11.8%
			중하 41.1%
			하 23.5%

다문화청소년의 학업 수행을 위한 교육지원 및 진로지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활동과 관련해,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58.6%)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방과 후 수업이 20.7%로 많았다. 이 외에 국영수학원, 배움터(공부방), 학습지는 각각 6.9%로 이용수준이 저조하다. 이를 통해 다문화청소년들은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방과 후 수업과 같이 공교육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다문화청소년들이 학업수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은 학습지도(33.3%)이며, 그 다음으로 진로상담(25.0%)과 문화예술교육(25.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고민상담이 5.6%를 차지한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이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과거에 참여한 경험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선생님의 권유(35.3%)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참여 동기로 학교성적 향상(11.8%)이나 부모님의 권유(5.9%)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넷째, 희망하는 고교 및 대학계열을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전체의 80% 이상이 일반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등 인문계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20%로 낮았다.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 국공립대학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립대학교가 20%, 전문대학교 20%, 교육대학교 10%의 순이다. 고등학생 중에는 대학에 진학하기보다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도 10%를 차지한다.

다섯째, 다문화청소년의 60% 이상이 진로 관련 강연 및 수업과 적성검사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 진로관련 책/잡지 지원, 직업생활 체험프로그램, 소집단활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이용한 경험이 없는 프로그램은 앞으로 경험하고 싶거나,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6) 한국어능력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1점 매우 잘함, 2점 보통, 3점 약간 가능함, 4점 거의 가능하지 못함으로 구성된다.
  - 7) 가족관계, 친구관계, 선생님과의 관계는 5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1점 매우 좋음, 2점 좋음, 3점 보통, 4점 나쁨, 5점 매우 나쁨으로 구성된다.
  - 8) 학교수업 난이도는 5점 척도로서, 1점 매우 쉬움, 2점 조금 쉬움, 3점 알맞음, 4점 조금 어려움, 5점 매우 어려움으로 구성된다.

〈표 9〉 설문 응답결과

구분	응답 내용				
	학습 활동	멘토링 58.6%	국영수학원 6.9%	배움터(공부방) 6.9%	학습지 6.9%
필요한 지원프로그램	학습지도 33.3%	진로상담 25.0%	문화예술교육 25.0%	고민상담 5.6%	기타 11.1%
교육프로그램 참여 동기	학교성적 향상 11.8%	부모님 권유 5.9%	선생님 권유 35.3%	이전 참여경험 47.1%	
희망 고교계열	일반고 30.0%	특목고 30.0%	자사고 20.0%	실업고 20.0%	
희망 대학유형	국공립대 40.0%	사립대 20.0%	교육대 10.0%	전문대 20.0%	취업 100%
진로지원 프로그램 경험	강연 및 수업 61.5	소집단 활동 23.1	적성검사 61.5	직업생활 체험프로그램 30.8	진로 관련 책/잡지 지원 46.2
진로 지원프로그램 이용 의사	강연 및 수업 38.5	소집단 활동 76.9	적성검사 38.5	직업생활 체험프로그램 69.2	진로 관련 책/잡지 지원 53.8

다문화청소년의 장래 진로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다음 〈표 10〉과 같이 구성하였다. 아래 항목들은 5점 척도로 측정하고,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진다. 다문화청소년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은 진로탐색과 진로결정을 위한 지원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가 된다.

〈표 10〉 장래 진로에 대한 현재의 상황

항목	평균
나는 아직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	3.85
나는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직업의 종류, 성격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3.08
나는 현재, 내가 갖고 싶은 장래 직업이 자주 바뀐다	3.23
나는 현재, 장래 직업에 대해 부모님과 의견 차이가 있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77
생각해본 적이 없다	1.62

위의 항목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문화청소년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직업이 모호한 상태인데다, 진로탐색을 위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적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나가며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지원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일차적으로 『20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업수행을 위한 교육지원과 진로지원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먼저, 『20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수행 및 진로지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학률이 낮은 편이나, 재학생들은 학업을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의 대부분은 4년제 대학 이상에 진학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반해, 학업수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진로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접한 경험은 낮았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수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진로 탐색 및 개발을 위한 진로개발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추가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다문화청소년들은 멘토링 프로그램과 방과 후 교실 외에는 학업수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낮으며 대체로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수행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 학습지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진로상담 및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요구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진로진학과 관련해 다문화가정의 중학생들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하고 고등학생들은 국공립대학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청소년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직업이 모호한 상태인데다, 진로탐색을 위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적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들은 진로지원 프로그램으로 진로 관련 강의나 수업, 적성검사 외에 직업생활 체험프로그램이나 진로 관련 책이나 잡지, 진로 관련 소집단활동 등을 경험한 비율은 낮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한국은 다문화사회의 이행에 대비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진로준비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탐색과 진로준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면,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표본수가 지나치게 적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데, 낮은 대표성으로 인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게다가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부산지역이라는 한정된 지역에 관한 정보만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후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순규. 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18(3): 247-272.
- 김승경. 2013.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김혜미 · 문혜진. 2013.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과 비다문화가정(한국인 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5(4): 7-31.
- 박순희 · 이주희. 2009.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적응유연성(Resilience) 측정도구의 개발”. 『청소년학연구』 16(6): 103-134.
- 백지숙 · 김진 · 유영하. 2013. “전남지역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 인구배경학적 요인, 개인심리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1(4):157-170.
- 서은경 · 김병석. 2013. “다문화가정의 부부갈등과 자녀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1(2): 449-476.
- 설동훈 · 윤홍식. 2005.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양계민 · 박주희. 2013.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2013.
- 엄명용. 2013.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 영향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42: 39-83.
- 이병철 · 송다영. 2011.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4): 131-154.
- 이유경 · 류재윤 · 방홍복. 2012. 『부모의 긍정적 진로관여가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다문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재분 · 김혜원 · 이해영 · 이혜원 · 김혜영. 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교육지원

- 을 위한 핵심역량 현황 및 인식”. 『한국교육』 36(2): 3-29.
- 정선진 · 김진국. 2012.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8): 77-102.
  - 조혜영 · 최창욱. 2007. “청소년 정책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청소년 정책참여 기구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4(6): 203-227
  - 여성가족부. 2013. “지난 3년간 다문화가족의 초기 한국생활 적응이 진전” 보도자료. 2013.2.26.
  - 여성가족부. 2012.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연합뉴스. 2012. “농촌에 아기 울음소리 ‘우렁’. 농촌 출산율 도시의 2배”. 2012.9.20.
  - 이데일리. 2014. “[K-메이플라워호 맞이하자② 다민족 · 다문화국가로. 대한민국 구성원이 달라지고 있다” 2014.10.7.
  - 중앙일보. 2014. “다문화시대의 한국 쌍꺼풀에 넓은 이마 남방계 얼굴로 간다” 2014.9.24.
  - 교육부. 2014. 『다문화학생현황 통계』 (www.moe.go.kr)
  - 한국교육개발원. 2012. 『2012간추린 교육통계』
  - 안전행정부. 2014. 『2014년도 외국인주민현황』
  - 안전행정부. <http://www.mospa.go.kr>

## **Academic Performance and Career Support System of Multicultural Youth in Korea**

Jang, Im Sook (Pusan National University)

Kim, Hee Jae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rasp the status on academic performance and career support of the multicultural youth. First, The current status of the multicultural youth is grasped by using various statistical materials. Second, An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to grasp academic performance and career support of the multicultural youth by making use of raw data on 『A Study on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2』. Additionally this paper is to figure out the status on education program for academic performance and the current status of career support through the survey on the multicultural youth. The result of this paper would be utilized as baseline data to develop a career support program for multicultural youth in the future.

**<Key words>** multicultural youth, career support, academic performance